

##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Memory Studies by Lim, Jie-hyun and Miroslav Volf**

김 욱 (Uook Kim)\*\*

### ABSTRACT

This article's issue is how Korean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can integrate Korean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According to Lim, Jie-hyun, throughout western languages, the term "responsibility" has more meaning of "response+ability" than of duty. So response to victims' memories is a responsible response of people of God to triune God that memories and responses to human suffering. Especially Miroslav Volf's explanation about Martin Luther's soteriology and eschatology proves this point well. Based on such theological insights, Korean Christian worldview movement must integrate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into Christian education through catechism and Eucharist.

**Key words** : state violence, memory, Lim Jie-hyun, Miroslav Volf, Christian education

---

\* 2022년 2월 22일 접수, 3월 26일 최종수정, 6월 3일 게재확정

\*\* 성공회대학교(Sungkonghoe University) 신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kimcranmer@naver.com

## 1. 들어가는 글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지구상 최후의 분단국가로 200만에 가까운 병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여러 함의를 지닐 것이다. 분단구조 아래에서 흑백논리와 진영논리가 정당화되고, 적으로 지목된 대상에 대한 솔한 국가폭력 행위가 조장, 묵인, 은폐, 강요되었다. 분단과 이념대립으로 벌어진 가장 대표적인 남한의 국가폭력으로는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후 기간까지의 대규모 민간인학살과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고문, 실종, 의문사 사건들, 국가의 부작위와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회피, 진실규명방해로 이어진 4.16 세월호 참사들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국가폭력은 해외로까지 확장되어 베트남 민간인학살로 이어졌다. 한국개신교회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의 동참자이거나 암묵적 동조자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임지현과 미로슬로브 볼프(Miroslav Volf)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남한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를 논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탐구이다. 현재도 2010. 9. 22부터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의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골령골 민간인학살은 한국전쟁기 가장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사건으로서,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일원에서 7,000명의 보도연맹원들과 대전형무소 재소자가 법적 절차없이 학살, 매립된 사건이다. 2022년 국가단위의 위령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가폭력의 정의와 적용과 관련하여, 간략히 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 국가폭력의 정의와 관련하여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위원회나 칠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우루과이, 볼리비아, 아이티, 짐바브웨, 알제리, 우간다, 차드, 네팔, 스리랑카, 스페인, 스탈린 체제의 구소련, 우간다 등 20여 개 국가의 과거사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헤이나, 2008). 헤이나의 저술에는 한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안병욱의 해제가 실려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공식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2009년과 2010년에 간행한 조사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정의와 범위를 국가폭력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용함을 밝힌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법원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이 제기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들에 내린 판례들도 국가폭력의 판정 기준과 범위와 관련된 논란에 주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기억하면서, 폭력사실을 미화, 정당화, 은폐, 왜곡 심지어 부정하는 행동들이

참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곤하는 동아시아의 사례들에서 보듯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폭력의 정의와 규정, 적용 등은 유골발굴 등을 동반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란/폭동’과 ‘항쟁’이라는 용어가 아닌 ‘사건’으로 최종명명된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사건’ 등의 사례가 이와 같은 과정의 결실이다.

## II. 부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책임과 기억

임지현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잔학행위와 악행, 주로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들을 고찰하면서 동양의 한자어 ‘책임(責任)’과 달리 ‘책임(responsibility)’이란 낱말로 대표되는 서구언어의 책임이란 단어가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이라는 뉘앙스를 가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어원을 따져보면,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죽은 자의 목소리에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자어에서 파생된 동아시아어의 ‘책임은 ‘잘못했을 때 말하는 다’는 의미가 강하지만, 유럽어의 ‘책임’은 ‘응답’의 의미가 강하다. 영어 responsibility나 프랑스어 responsabilité는 모두 응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더 직접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란 의미의 영어 answerability는 책임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누군가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억에 대한 책임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것이다(임지현, 2020: 13).

임지현의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입장에서 “응답능력”으로서의 기억이 갖는 책임성 혹은 책임적 기억은 중요한 작업 전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임지현은 조사치, 전승치, 추정치가 모두 다른 희생자수 조사결과나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따른 자국가중심적이고 선택적인 기억양상 등을 언급한다. 자신을 피해자로만 기억하고, 또 피해자로서만 자신을 규정하는 기억 속에서 어떻게 기억을 재구성하고 무엇을 진실이라고 규명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발생한다. 각기 자기중심적으로 다르게 기억하는 과거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에서 “응답능력”으로서의 책임성이 갖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임지현의 후속 저술 『희생자의식 민족주의』(2021)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이 심화된다. 임지현이 논의 서두에서 지적한 ‘응답 능력’으로서의 책임은 책임적 기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필자는 임지현이 말하는 “응답 능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전용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 진영의 자기중심적인 “기억 전쟁”에 대하여 책임적 응답으로서 기억의 동기와 기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우선적 응답대상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연장으로 국가 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주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가주의나 진영논리를 극복 혹은 초월할 수 있는 책임적 기억의 토대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정한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동료 인간 혹은 동료 인간의 기억에 대해 응답하기 이전에 인간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기독교 교육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서구언어에서 책임이란 개념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의한다고 할 때, 책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독교 신앙이해에 도입하면, 기독교적 의미에서의 책임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앙공동체와 신자 개개인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회중, 즉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에서 회중이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에 의해 형성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응답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는 구약성경에서 회중이나 총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한 말이다. 히브리어 카할의 어원은 ‘불러내다’라는 뜻을 지니며,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도 ‘부르다’를 뜻하는 칼레오가 들어가 있다. 신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뜻하는 두 단어가 모두 부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에서 부르심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주제가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 근본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송인규, 2001: 256).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회중을 부르시는 야웨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사람들이 받는 압제와 부당한 일들을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점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대목에서 명징하게 드러난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출애굽기 3:4).”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고통과 억압,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기억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억 위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웨 하나님의 부르심은 압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부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기억과 응답이라는 요소가 드러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총회됨-카할됨’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에 묘사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이 무리로 나아온 사건이었다. 하나님의 카할로서 이스라

엘이 나아온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기억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출애굽기 20:2).” 하나님은 당신이 불러내신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억압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불러내시고 해방하신 분이심을 단언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한 사람의 기억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무리로서의 하나님의 카탈은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성경의 핵심적 주제 중 하나인 언약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교회 간에 맺어지는 언약에는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이란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은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들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기억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충실히 기억해야 함을 언약의 기초로 삼게 된다. 언약과 기억의 관계는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한 기억이라는 점에서 충실함에 대해 요구되는 충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지현이 소개한 서구언어의 책임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보여주는 응답하는 능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적용해보면, 언약이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맺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교회된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발하는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신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이렇게 말한다. “비록 야웨가 최고의 치료자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야웨께서 의도하신 치료는 인간 중개자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점이다(Bueggemann, 류호준·류호영 역, 2003: 420).” 또한 야웨의 치료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가 진실말하기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의 치료는 진실말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Bueggemann, 류호준·류호영 역, 2003: 418). 브루그만은 거짓과 부인이 있는 곳에는 치료가 일어날 수 없다고 지적한다(Bueggemann, 류호준·류호영 역, 2003: 418). 브루그만은 직접적으로 기억에 대해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브루그만이 지적하는 진실말하기는 기억논의에서 근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요소이다. 필자는 이 점에서 브루그만이 논의하는 진실말하기와 치유 간의 관계가 기억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은폐되거나 부정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공동체가 되살리고 대변함으로써 국가나 사회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의 치유를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실을 말하는 기억은 기독교 교육에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자를 진실을 함께 기억하는 중개자 혹은 기억매체로 양성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이 진실말하기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가 기독교 교육과 관련해서 가지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의사-치료자 이미지에서 하나님은 치료를 위해 인간중개자를 부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게 하심으로 치료를 시작하

시는 분이시다. 이 점은 기억과 치유 사이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점은 본고의 이후 논의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구약성경의 윤리를 특징짓는 주변부, 국외자, 소수자, 약자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 하나님의 기억과 고통에 대한 응답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해방사건에 대한 언약백성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깊이 천착할 점이다. 이 점은 하나님의 충실한 기억 속에서 부르심을 받고, 해방받은 하나님의 카할로서의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기억을 삶의 규범을 삼아야 함을 뜻한다. 즉 언약백성의 규범과 윤리가 기억에 대한 기억, 응답에 대한 응답, 책임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운 연약성(vulnerability)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권리옹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카할,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연유하게 된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의와 불공정, 억압과 부당함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구속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책임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면, 기독교적 책임이란 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는 능력이 된다. 여기서 폭력희생자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각자가 폭력희생자들의 학대받은 기억에 주목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연대하는 책임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교회는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책임있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희생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충실히 기억하고, 그 고통에 충실하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억에 응답하는 존재이다.

필자는 임지현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책임개념에서 시작한 기억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복잡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개신교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적 응답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기억하기를 통하여 역사에 대해 책임있게 응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 교육의 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이 진영갈등이 심화된 국가에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정치문제를 교회와 기독교 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논란을 빚을 수 있다. 필자는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의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복음주의 개신교의 <로잔언약>(1974), 본회피의 “두 왕국론” 극복논의와 관련한 독일교회의 경험, 로마 가톨릭의 사회교리 발전 등을 근거로 인내로운 토론과 합의, 설득과 경청의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Bethge, 김순현 역, 2006: 224; 한상봉, 114).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서 중요성을 지니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니콜라스 윌터스토

프(Nicholas Wortorstorff)의 경우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카이퍼는 계급갈등을 둘러싼 좌우의 대립 속에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여, 기독교적 정치에 참여하였고, 월터스토프의 경우는 인종갈등과 민족갈등의 현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팔레스타인의 사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음을 본다.

### III.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독교적 기억

미로슬라브 볼프는 인종청소와 종족갈등, 내전으로 점철된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출신 신학자로서, 국가폭력과 종족갈등을 경험한 인물이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볼프는 자전적 저서 『기억의 종말』(The End of Memory)에서 폭력희생자들의 기억과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논한다. 볼프는 이신칭의라는 구원론의 요소, 최후의 심판과 같은 종말론의 요소가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과정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86).

볼프는 학대받은 기억을 함께 기억하고, 폭로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대세가 된 상황 속에서 기억만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어서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볼프의 기억논의는 올바른 기억하기에 관한 성경적인 신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볼프는 지배적 기억담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분명한 기억을 전제로 용서와 화해 그리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망각을 제안한다. 특별히 망각을 다룬다는 점에서 볼프의 신학적 기억논의는 사회와 인접 학문의 기억논의와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육이 볼프의 이 강조점을 채택한다면 사회 일반의 기억논의가 노정하는 또 다른 갈등 가능성에 균열을 내고, 균형점과 화해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육이 종말에야 완성될 구원이라는 종말론적 유보에 입각해 “기억 전쟁” 안에 있는 이들 사이에 화해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7). 볼프의 기억논의가 가지는 이러한 독보성은 그의 경험과 더불어 특별히 볼프가 적지않게 의존하는 마르틴 루터의 성경해석과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Volf, 홍종락 역, 2016: 271-272).

#### 1.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구원론

볼프는 자신이 경험한 국가폭력과 관련하여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과정을 위한 신학적 기초로서 이신칭의와 용서, 화해 등 구원론적 주제들을 분석한다. 볼프가 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구원론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의 함의 즉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내는 새

로운 자아정체성이라는 개념에 기초한다. 볼프는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언급을 인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안에서 산다.”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따르면 그리스도인됨은 이주를 뜻하며,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바깥에 산다. 즉 하나님 안에 살고, 이웃 안에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또는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만들지도 파괴하지도 못한다.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타인들이 우리 영혼과 몸에 새긴 것은 흔적을 남기고, 우리 다음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1-272).

볼프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신칭의의 가르침은 폭력희생자들의 기억에도 적용한다. 다시 말해 가해자들의 행위가 폭력희생자들의 정체성을 만들지도, 규정하지도, 지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이 정체성의 참된 동인이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사람이 한 일이 자신을 규정하지 못함을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피해자가 한 일이 자아정체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현존과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들려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2).”

볼프의 이와 같은 신학적 진술은 수궁하기가 어렵고, 의문을 자아내며, 헤아릴 수 없는 상실과 비탄과 슬픔을 경험한 희생자들에게 제안하기가 주저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과 신학전통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복음의 적용이다. 사람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참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신앙이 폭력희생자들에게 가해진 악행에 대한 명확한 기억작업과 함께 교육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기억을 통해, 그 기억 안에서, 그 기억과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단계를 밟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에서 이신칭의에 의거한 기억이라는 강조점은 기독교 교육이 사회와 역사의 기억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규정할 수 있다는 이신칭의의 강조점은 국가폭력과 같은 사회구조적 죄가 마성을 드러낼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손쉬운 미봉책을 경계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한 일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부여받고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은 악의 주체를 상대화하거나 책임소재를 흐리거나 악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하는 신정론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볼프는 루터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루터와 다르게 오늘날은 과거의 일부를 상실하면 자아가 쪼그라든 것처럼 느낀다. ... 동일성에 관한 이런 견해는 '나는 내가 경험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루터에 따르면, 상황은 정반대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무한한 신비 속에 머무는 존재였던 자아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담는 그릇 정도로 오그라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채움을 얻고 보호받고 기쁨을 누리는 자아는 자기 자신과, 불의를 당한 기억과, 거기서 생겨난 죄책감을 놓아 보낼 수 있다. 이런 자아는 하나님 안에만 마냥 머물지 않는다.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아라면 사랑으로 이웃 안에 있기도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자아는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포용한 무기억은 상실이 아니라 과거가 비가역성이라는 철권을 휘둘러 행사하는 독재로부터의 자유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가져가시지 않으며, 모아진 조각들, 재구성한 이야기들, 참으로 구속된 자아들, 영원히 화해한 사람들로 바꾸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Volf, *홍종락 역*, 2016: 277).

은혜에 의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폭력희생자들 안에서 형성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확대 받은 기억에 대해 가지는 힘과 영향에 대한 볼프의 서술은 반복된다. 볼프는 구원론의 함의를 새롭게 기억논의에 적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폭력 경험의 기억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볼프는 강조한다.

괴테의 <파우스트> 속 마가레타가 마가레타인 것은 파우스트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 없는 헌신과 그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리 존재와 정체성의 근원으로 믿으며 그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자리를 잡으면, 과거의 어떤 사건을 잊어도 존재하기를 그치지 일은 없게 된다. 에버하르트 융엘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일 것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7).”

하나님은 먼저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완전한 거처로 만들어진 새 자아를 마가레타 안에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파우스트에게 용서와 무기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전달할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자아를 발견했으니,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번성할 것이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난 상처를 놓아 보낼 것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86).

## 2.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종말론

볼프가 제안하는 기독교적 기억의 마지막 단계인 망각은 종말론에 기반한 것이며, 종말론의 현재적 적용을 제안한다. 국가폭력과 연관된 과거사를 회피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시키려 할 때,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최종적 구원이 국가폭력희생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종말론과 기억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종말론적 이행이 이루어진 후,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파괴될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간 후, 최후의 심판 이후, 사람들이 저지르고 겪은 악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아래 공개적으로 드러난 후, 가해자들의 죄가 지적받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진 후, 그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하나의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알아본 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는 악행을 당한 기억을 잊게 될 것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78).

볼프는 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논하면서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언급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43). 볼프는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후의) 심판은 악행과 짐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의 세계로 넘어가는 통로이다. 최후의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다. 심판에서 은혜가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죄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고, 죄인들이 죄책을 벗고 변화되어야 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44).

볼프는 선부른 용서나 망각, 일상으로의 복귀, 책임소재의 희석 등이 끼어들 자리를 배제하면서 하나님이 가져다주실 종말을 완전한 사랑의 세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완전한 사

량의 세계로 넘어가려면 은혜의 심판과 최종적 상호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Volf, 홍종락 역, 2016: 247). 볼프의 논리를 따르면, 기독교 교육에서 종말론이 희망과 사랑의 사회, 하나님의 변영으로 충만해진 생태계에 관한 비전으로 가르쳐질 때,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볼프는 논쟁적인 주제인 망각, 즉 기억의 내어놓음을 논하면서도 현실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

최후의 심판을 포함해서 보다 공적인 심판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기억이 바로 심판이다.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용서와 화해를 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다. 기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억을 놓아 보내는 순이다. 용서조차 일방적 행위가 아니며, 기억을 놓아보냄은 더 상호성이 강하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악행을 기억해야 할 의무는 유효하다.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Volf, 홍종락 역, 2016: 280).

정리하면 필자는 볼프가 기억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구원론과 종말론이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관련된 기독교 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IV.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필자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방편으로 하여 기독교 교육과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교리문답은 기독교신앙에의 입문과정 특별히 세례교육과 관련하여, 또한 기독교 교육의 재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 주요한 교육적 방편으로서 상시적 중요성을 지녀왔다(정신철, 2015: 44; Kreider, 허현 역, 1995: 43). 성찬례는 설교와 교리문답을 통한 기독교 신앙입문의 최종 단계이며, 설교와 더불어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 방편으로 교회사 안에서 인간의 모든 상황을 위해 집행되어 왔다.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통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 이전에 설교가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우선성과 중요성을 잠시 전제하고 들어갈 필요를 느낀다. 기독교예배에서 신경/신조의 낭송을 통한 신앙고백은 성경과 성경말씀에 대한 해설로서의 설교에 대한 응답으로서 설교 다음에 위치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설교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의 예배내적 관계맺음에서 설교는 언제나 성찬례의 앞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 성경의 봉독과 읽혀진 성경본문의 해설인 설교는 예배학적 원리에서 교리문답과 성찬례에 앞서며, 설교는

교리문답과 성찬례에 대하여 “모든 것은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말씀의 우선성과 수위성이라는 교부모적 근본원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재천명되었으며, 이 점은 종교개혁자들이 재천명한 참된 교회의 두 표지인 “말씀의 바른 해설과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에서든 확인된다. 따라서 설교는 신학적 논의에 있어서나 예배학 순서에 있어서나 기독교 교육적으로 최우선적 위치를 지닌다. 다만 복음주의적 개신교에게 설교의 기독교 교육적 위치와 가치는 재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교리문답과 성찬례의 기독교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다.

설교가 우선적으로 가지는 기독교 교육적 가치는 본고가 교리문답의 사례로 들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설교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52주로 구성되어 개혁파 교회의 주일오후예배나 주일저녁예배에서 설교순서에서 문답되거나, 설교되었다.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본래 설교와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작성, 고백, 사용되어 신자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적용된 것이다. 교리문답을 통한 기독교 교육은 설교와 동반된다.

설교와 성례전 사이의 관계에서도 설교의 우선적 위치가 드러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fides ex auditu: 로마서 10:17)”, 성례전은 이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재천명하며, 설교를 다시 교회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개혁을 실행하였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언명에서 설교와 성례전 사이의 순서가 분명히 보여진다. 성례전은 설교와 함께 하며, 설교에 뒤이어 올 때 복음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찬례의 기독교 교육적 가치와 유용성 또한 설교의 기독교 교육적 기능과 동반되어 검토되는 것이 정당하다. 필자는 특별히 현재(2021-2023) 진행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세계주교 시노드의 ‘시노달리타스’ 논의를 해설하는 천주교의 교회론학자 최현순의 다음과 같은 해설에 주목한다. “신앙은 ‘들음으로부터’ 온다. ...말씀을 듣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최현순, 2022: 61).” 최현순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 첫 자리에, 가장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다(최현순, 2022: 63).” 베네딕트회 수도원장인 이연학은 말씀과 성찬례 사이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씀이 교회를 건설하듯, 성찬도 교회를 건설합니다. 말씀과 성찬, 이 둘은 교회 공동체의 건설에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협력’(synergeia) 관계, 말하자면 ‘시너지’ 관계에 있습니다(이연학, 2013: 91).

기독교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설교와 성찬례 사이의 관계는 협력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연학은 다음과 같이 설교와 성찬례, 말씀과 성례전 사이의 관계를 해설한다.

이제 전례와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례는 무엇보다 먼저 신앙 공동체가 하느님 말씀을 귀기울여 듣고 선포하며 거행하는 유일무이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전례집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원래 자리'(locus primordiale)입니다 (이연학, 2013: 77).

또한 교리문답과 성찬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시 논의하고자 한다. 교리문답은 성례전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점과 성례전이 교리문답에서 학습한 신앙의 구체적 가시화라는 점에서 교리문답과 성찬례는 연계성과 상보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리문답과 성찬례는 둘 다 설교에 대한 응답과 설교가 완성이라는 점에서 설교와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서 기독교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갖게 된다.

### 1. 교리문답을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기억과 관련하여 교의학의 분야들이 연계될 수 있는 요점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억울한 이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론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카할공동체/에클레시아공동체'로서의 교회론, 이신칭의가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대한 구원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 추시는 사랑의 춤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가 춤추며 기억을 놓아 보내게 되는 종말론 등등이 그것이다. 교리들이 기억과 관련하여 갖는 적용점이 강조된 교리문답을 개발하여,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하는 작업에 활용해볼 것을 제안한다. 신앙고백이나 교리문답의 각 항목이나 주제들이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들이 기독교 교육에서 다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들에 대한 새로운 적용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에 초점을 맞춘 한국의 교리문답을 개발하여,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바르멘 신학 선언>의 두 신앙고백이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첫 주일 본문은 1문과 2문으로 구성되는데, 1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문 :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확신하게 해 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Heidelberg Catechism, 1563, 제1과).

교리문답의 시작을 ‘위로(trost)’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접근방식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방식이라기보다 아래로부터 즉 고통하고, 신음하고, 눈물짓는 인간적 삶에서 시작하는 하나님 이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공감의 방식으로 교리가 진술되고, 신앙이 이해되고,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짐을 뜻한다. 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된 현대사 속에서 한국 개신교는 여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기억과 관련된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는 한국 개신교가 위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로의 전달자들을 양성할 때이기도 하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취하고 있는 연민과 공감의 방식으로 진술된 한국교회의 교리문답이 개발된다면, 위로의 전달자들을 양성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유익하리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거듭된 망언과 몰상식으로 공분의 대상이 되고, 그리스도인 유가족들의 탈교회화로 이어진 사실은 한국개신교의 신앙이해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지 못하는 측면을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대면하면서 공감을 통한 위로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기독교 교육에서 진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 교리문답이라는 교육적 방편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을 반영한 교리문답의 개발에 있어서 참고하기를 제안하는 두 번째 자료인 <바르멘 신학 선언>(Die Barmer Theoloische Erklärung, 1934)은 독일과 미국의 개혁파 공예배의 신앙고백 순서에서 고백되기도 하는 것이다. <바르멘 신학 선언>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에 순응하던 독일국가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에 맞서서 독일고백교회가 발표한 신앙고백이다. <바르멘 신학 선언>은 유대인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신학적 근거를 제공하던 독일국가교회에 대항하여 발표된 신앙고백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에 있어 각별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바르멘 신학 선언>의 서언 부분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다.

우리는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개신교의 통일성을 파괴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들과 현재의 제국교회정부의 오류들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은 개신교의 진리를 고백한다: 1.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요한복음 10:1, 9).” 성서에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생사를 걸고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선포의 근원으로서 또 다른 사건들과 권력들, 인물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승인할 수 있고, 있어야 한다는 왜곡된 가르침을 배격한다(바르멘 신학 선언, 1항).

<바르멘 신학 선언>은 한국의 일부 신학진영에게는 유의미한 전범이 되기도 했다(손규태, 1994: 145). 신경이나 신앙고백서를 통한 기독교 교육과 상황과의 통합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가로 예시할 수 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바르멘 신학 선언>을 공예배시 사도신경과 대체가능한 것으로 위치시키는 미국장로교회(PCUSA)의 <공동예배서>(Book of Common Worship) 사례에 더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신경> 제정과 공예배시의 낭독 사례, 로마가톨릭의 세례예비자 교육 과정으로서 <사회교리>(Social Doctrines of Catholic Church)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 2. 성찬례를 통한 기억의 기독교 교육

출애굽 경험을 기억하는 유월절 식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성찬례는 그 자체가 기억의 의례로서, 제정의 말씀(Institution)과 기억(Anamnesis)이라는 기억기제를 포함하고 있다. 성찬례의 이 두 기억기제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과 함께, 기억을 통하여, 기억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은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성찬례 안에 기억기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성찬례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성찬례를 통하여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학생들의 신앙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을 기억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연대(solidarity)의 성격에서 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폭력 희생자들과 하나님을 동일화하게 하는 구원사건이다. 볼프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e)에서 몰트만(Moltmann)의 십자가 해석을 이렇게 재인용한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은 단지 그분의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고통으로, 예수님은 그들과 연대하시며 자신의 몸과 자신의 영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수난을 통해 이 세상의 수난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와, 신적 정의와, 생명을 창조하는 의가 들어오게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폭력의 희생자들과 동일화하시는” 동시에 “희생자들은

---

하나님과 동일화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분과 더불어 그들이 빼앗겼던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Volf, 박세혁 역 2021: 33).”

존 스토틀(John Stott)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Cross of Christ)에서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Der Gekreuzigte Gott)에 나오는 십자가 해석을 인용하고 논평한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며 그의 유기의 외침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이해하게 되는가? 우리가 거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 속에서, 버림받은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Stott, 황영철·정옥배 역, 1988: 271-272).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성찬례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 안에서 동일화하신 폭력 희생자들을 또한 기억하게 된다.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야만 한다.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일은 기독교 교육적으로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성찬례는 기독교 교육이 기억의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례로 예배신학자 제임스 화이트(James White)는 그의 저술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선물』(Sacrament as God's Self-Giving)에서 성례전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해 길게 논의한다(White, 김운용 역, 2006: 230).

특별히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을 중시하는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서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 수 있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장이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례에 참여하는 기독교 교육의 학생들은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을 배우게 된다. 아래로부터의 관점이란 배제당한 이들, 학대받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볼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본회퍼는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계승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관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아래로부터의 관점, 이른바 배제당한 사람들, 피의자들, 학대받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요컨대 고난 겪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끔찍한 사건들을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비할 데 없이 값진 경험이다. 이 시대에 빈정거림과 질투가 마음을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것과 하찮은 것, 행복과 불행, 강함과 약함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고귀함과 인간다움과 옳음과 자비를 보는 우리의 관점도 더 분명하고, 더 자유롭고, 더 확



고해질 것이다(Bonhoeffer, 김순현 역, 2016: 51).

특히 성찬례는 종말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선취, 선참하는 종말론적 희망의 성례전으로서 볼프가 말하는 기억과 관련된 종말론의 전망을 실체화하여, 미리 맛보는 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으키실 우주적 변모 안에서 모든 억울함이 신원되고, 눈물이 씻겨지며, 명예가 회복될 종말론적 전망에 참여하는 성례전인 성찬례 안에서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은 수렴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성례전으로서의 성찬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한국개신교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 V. 결론

임지현과 미로슬로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온 본고는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응답이며, 기독교 구원론과 종말론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계신 구원의 전망이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에 대하여 적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밝혀보았다. 이와 같은 신학적 통찰을 기독교 교육의 현장에서 적용할 방편으로는 국가폭력희생자의 기억에 근거한 교리문답과 성찬례를 제안하고,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필자는 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을 통합하는 면에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한국 개신교가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로서 진실과 용서와 화해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임지현이 말하는 “응답능력”으로서의 책임을 기독교적 관점의 책임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란 인간의 삶과 문화를 포괄하는 삶의 총체성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인간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과 성령의 행을 적용하려는 전망이다. 기독교적 책임이란 문화명령이라고 명명된 창조의 말씀에 대한 책임적 응답이면서, 동시에 타락한 세계를 향한 구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겠다. 타락한 세계와 우주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한 책임적 응답으로서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의 통합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① 단행본

- 김동춘 (2013).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 서울: 사계절.
- [Kim, D. C. (2013). *This is Memory War: Korean War & Massacre & Truth*. Seoul: Sakyejul]
- 김상숙·박은성·임채도·전명혁·한성훈·홍순권 (2019).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서울: 푸른역사.
- [Kim, S. S., Park E. S., Lim C. D., Jeon M. H., Han S. H. & Hong S. K. (2019).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nd State Violence*. Seoul: Purunyoksa.]
- 노용석 (2018).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서울: 산지니.
- [Roh, Y. S. (2018). *State Violence and Socio-Cultural History of Relic Excavating*. Seoul: Sanjinibook.]
- 신기철 (2015). **전쟁범죄**. 서울: 인권평화연구소.
- [Shin, K. C. (2015). *War Crime in Korea. Seoul: Geumjunggul Human rights & Peace Foundation.*]
- 송인규 (2001). **평신도 신학1**. 서울: 홍성사.
- [Song, I. K. (2001). *Lay Theology 1*. Seoul: Hongnungsa.]
- 안병직 (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 [Ahn, B. J. (2005). *Settlement of Past History of the World*. Seoul: Purunyoksa.]
- 이연학 (2013). **성경은 읽는 이와 함께 자란다: 거룩한 독서의 원리와 실천**. 서울: 성서와함께.
- [Lee, Y. H. (2013). *Bible Grows with Readers: Principle & Practice of Lectio Divina. Seoul: Withbible.*]
- 임지현 (2020). **기억전쟁**. 서울: Humanist.
- [Lim, J. H. (2020). *Memory War*. Seoul: Humanist.]
- 임지현 (2021).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서울: Humanist.
- [Lim, J. H. (2020). *Victimhood Nationalism*. Seoul: Humanist.]
- 정신철 (2015). **교리교육의 역사**. 서울: 돈보스코미디어.

[Jung, S. C. (2015). *History of Catechism*. Seoul: DonBosco.]

정찬대 (2017). **꽃갈던 청춘, 화문산 능선 따라 흩뿌려지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기록**(호남·제주편). 서울: 한울아카데미.

[Jung, C. D. (2017). *Korean Wartime citizen Masacre: Honam·Jeju Province*. Seoul: Hanulplus.]

최현순 (2022). **시노달리타스: 저 마다 제 길에서 그리고 함께**. 서울: 바오로딸.

[Choi, H. S. (2022). *Synodalitas: Uniquely & Together*. Seoul: Pauline.]

한상봉 (2018). **내가 그 사람이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서울: 가톨릭일꾼.

[Han, S. B. (2018). *That Man is Me: Social Teachings of Catholic Church*. Seoul: Catholicworker.]

## ② 정기간행물

손규태 (1994). 바르멘 신학 선언 60주년. *기독교사상*, 425(5), 145-155.

[Son, K. T. (1994). The Theological Declaration of Barmen 60th anniversary. *Christian Thought*, 425(5), 144-155]

## ③ 연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종합보고서 1~4**. 서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2010). *Final Report Vol. 1~4*. Seoul: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200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보고서**. 서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Truth Committee of Korea (2005). *Korean Wartime citizen Masacre Reasearch Report*. Seoul: Truth Committee of Korea]

## ④ 번역서

김균진 역 (2017).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Moltmann, J. (1972). *Der Gekreuzigte Gott*.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K. C. (2017). *Der Gekreuzigte Gott*.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Trans. Moltmann, J. (1972). *Der Gekreuzigte Gott*.

김소영·김세광·안창엽 역 (2001). **공동예배서**.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 (1993). *Book of Common Worship*.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 [Kim, S. Y., Kim, S. K. & Ahn, C. Y. (2001). Book of Common Worship. Seoul: Presbyterian Press. Trans. *Book of Common Worship*. Louisville: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
- 김순현 역 (2006). **디트리히 본회퍼**. Bethge, E. (1976). Dietrich Bonhoeffer. 서울: 복있는 사람.
- [Kim, S. H. (2006). Dietrich Bonhoeffer. Seoul: The Blessed People Co. Trans. Bethge, E. (1976). *Dietrich Bonhoeffer*. Reinbek bei Hamburg: Rowohlt Taschenbuch Verlag GmbH.]
- 김순현 역 (2016). **옥중서신-저항과 복종**,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서울: 복있는 사람.
- [Kim, S. H. (2016). Prison Letters-Resistance and Obedience. Seoul: The Blessed People Co. Trans. Bonhoeffer, D. (1951). *Widerstand und Ergebung*. München: Neuausg]
- 김운용 역 (2006). **성례전: 하나님의 자기주심의 선물**. White, J. (1983).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 [Kim, U. Y. (2006).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Seoul: Worship & Preaching Academy. Trans. White, J. (1983).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Nashville: Abingdon Press.]
- 류호준·류호영 역 (2003). **구약신학**, Brueggemann, W. (1997).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서울:CLC.
- [Ryou, H. J. & Ryou, H. Y. (2003).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Seoul: CLC. Trans. Brueggemann, W. (1997).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Minn: Ausburg Fortress.]
- 박세혁 역 (2021). **배제와 포용**. Volf, M. (1996). *Exclusion and Embrace*. 서울: IVP.
- [Park, S. H. (2021). Exclusion and Embrace. Seoul: IVP. Trans. Volf, M. (1996), *Exclusion and Embrace*. Nashville: Abingdon Press.]
- 배덕만 역 (2017). **윌터스토프 하나님의 정의**. Worto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서울: 복있는 사람.
- [Baw, D. M. (2017). Wortorstorff Justice of God. Seoul: The Blessed People Co. Trans. Wortorstorff, N. (2013). *Journey Toward Justice*. Grand Rapids: Baker Books.]
- 백지윤 역 (2019). **일과 성령**. Volf, M. (1991). *Work in the Spirit*. 서울: IVP.
- [Baek, J. Y. (2019). Work and the Spirit. Seoul: IVP. Trans. Volf, M. (1991), *Work in the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주혜경 역 (2008).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Hayner, P. B. (2000).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서울: 역사비평사.
- [Chu, H. K. (2008). State Violence and Truth Commuttees of the World. Seoul: Yukbi. Trans. Hayner, P. B. (2000). *Unspeakable Truths: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Challenge of*

*Truth Commissions*. London: Taylor&Francis.]

허현 역 (2019).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Kreider, A. (1995).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논산: 대장간.

[Hong, J. R. (2016).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Nonsan: Daejanggan Publisher. Trans. Kreider, A. (1995). *Worship and Evangelism in Pre-Christendom*. Cambridge: Grove Books.]

홍종락 역 (2016). **기억의 종말**, Volf, M. (2006). *The End of Memory*. 서울: IVP.

[Hong, J. R. (2016). *The End of Memory*. Seoul: IVP. Trans. Volf, M. (2006), *The End of Memory*. Grand Rapids: Eerdmans.]

황영철·정옥배 역 (1988). **그리스도의 십자가**. Stott, R. W. J. (1986). *The Cross of Christ*. 서울: IVP.

[Hwang, Y. C. & Jung, O. B. (1988). *The Cross of Christ*. Seoul: IVP. Trans. Stott, R. W. J. (1986). *The Cross of Christ*. Leicester: UCCF-England.]

# 국가폭력 희생자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 임지현과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를 중심으로

State Violence Victims' Memories and Christian Education:  
Focusing on Memory Studies by Lim, Jie-hyun and Miroslav Volf

김 욱 (성공회대학교)

## 논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이 어떻게 한국의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과 기독교 교육을 통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임지현의 논의에 따르면 서구권 언어에서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 ‘리스판서빌리티’(responsibility)는 “리스판스(response)+어빌리티(ability)” 즉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지닌다. 의무성을 강조하는 동양권의 ‘책임’이라는 개념에는 없는 ‘반응’이라는 개념이 서구권 언어의 ‘책임’이라는 단어에는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기억에 응답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에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책임적 응답이라는 신앙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의 구원론과 종말론에 관한 미로슬라브 볼프의 기억논의는 이 점을 잘 입증해 준다. 이와 같은 신학적 통찰에 기반하여 한국의 기독교세계관운동은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기독교 교육 안으로 통합해야 한다. 기독교 교육 안으로 국가폭력희생자들의 기억을 통합하는 일은 교리문답과 성찬례라는 두 방편을 통하여 가능하다.

주제어 : 국가폭력, 기억, 임지현, 미로슬라브 볼프, 기독교 교육